

III. 기획 연재

1. 수출 인프라 시리즈(3)-기업의 환 위험 관리¹⁾

□ 환 위험 관리의 필요성

국내 무역 업계의 애로사항 중에서 환율 변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

- (무역업계의 애로) 국내 무역 업계의 애로사항 가운데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(환 위험)를 우려하고 있음
- 1999년 3월 9일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, 조사대상업체의 51.38%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장애(환 위험)를 지적하고 있음

<수출 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>

요인	원화 강세	경쟁국과의 경쟁 격화	국내업체간 과당 경쟁	주요시장의 경기 침체	부대비용 부담 가중
응답비율*	51.3%	23.8%	23.0%	15.2%	14.7%

자료: 「최근 수출환경변화와 무역업계의 당면 애로」 한국 무역협회, 1999.3

*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작성

-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및 추가적인 외환자유화 등 달러화 초과 공급 요인이 많아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
- (일본 엔화의 절하 우려) 일본의 엔화 절하 우려로 한일 간 수출 경합 품목의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
 - 1월초까지 강세를 유지하던 엔화 환율이 달러 당 110엔을 기점으로 다시 약세로 반전, 2월 중순 이후 거의 120엔에 이르는 등 엔화 절하 우려가 있음
 - 해외 시장에서 한일간 수출 경합이 심한 품목은 전기 전자, 자동차, 기계, 철강, 타이어 등이며,
 - 이 가운데 자동차, 공작기계, 섬유기계, 건설기계, 타이어, 선재류 및 조강류, 및

1) 수출 인프라 시리즈 (1) 수출 물류 인프라의 문제점과 과제 (2) 서비스 수출 인프라 개선 방안 (3) 기업의 환 위험 관리 (4) 무역 정보화 및 정보 수렴 체계 (5) 수출 중계 시스템

영상표시장치의 수출에 엔저 기조가 큰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

□ 국내 기업의 환 위험 관리 현황

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뚜렷한 관리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함. 기업들은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, 환 위험관리를 위한 기업의 내부 체제와 국내시장 여건도 부족한 편임

- (대부분 뚜렷한 대응책 미비)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환 위험에 대해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
- 1999년 1월, 152개의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34%만이 환 위험에 대하여 대책을 준비중이며, 이들 기업도 특별한 대응책을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

<환율 급락에 따른 대책 수립 (응답구성비, %)>

	있다	없다
농림산품	40.0	60.0
경공업	32.7	67.3
중공업	33.9	66.1
전 체	33.9	66.1

자료: 「최근 원화 강세의 영향」 한국 무역협회, 1999.1

- (일부 대기업을 관리 방안) 다만 일부 대기업들에 한해 사내 선물환, 선물환거래, 외화자산과 부채의 통합관리, 스왑, 강세 통화로의 결제방법 전환 및 환율연동제 등을 활용하여 환 위험을 관리하고 있음
 - 일부 대기업은 선물환을 통하여 환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, 원화 상승세를 활용하여,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등 외화자산 부채 관리를 함
 - 원자재 수입과 제품수출이 빈번한 대기업들은 외화 수급 총량을 시기별로 철저히 맞추어 환 위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
 - 경우에 따라서는 스왑거래를 활용하여 원화와 외화자금을 통합관리하거나 여건에 따라 강세 통화로의 전환 및 계약을 변경함
 - 외국의 고정 바이어와 일정 기간별로 한 번씩 가격 협상을 함
- (문제점) 업계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며, 환 위험관리를 위한 기업 내부의 체제와 시장 여건이 미비함

- 업체는 정부가 외환시장의 개입을 통하여 달러화의 초과공급을 해소시켜 일정한 수준의 환율²⁾이 유지 되기를 바라고 있음
- 환위험 관리를 위한 기업 내부의 여건이 미비하며, 선물거래소도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아 금융선물을 통한 환 위험 관리에 기업은 어려움이 있음³⁾

□ 환 위험 관리 방안 및 개선 과제

기업 내부적으로 환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동시에 외부적인 시장을 활용하여 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. 특히, 4월 선물거래소에 상장되는 통화선물 및 옵션을 활용할 수 있음. 기업은 실제로 직면하는 환 위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, 체계적인 조직을 정비하며, 정부 당국도 선물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

- (환 위험 관리 방안) 크게 기업의 내부에서 자본 구조나 거래 방법을 조정하는 대내적 기법과 기업 외부 여건에 대처하여 자본 구조나 투자 방법을 조정하는 대외적 기법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 할 수 있음

▷ **대내적 기법:** 기업 내부의 자본 구조 또는 거래 방법을 조정하는 것임

- (자산·부채 관리) 외화 자산과 부채를 시장여건에 따라 적절히 관리
- (리딩과 래깅:leading and lagging) 시장여건에 따라 외환결제시기를 조정함
- (네팅과 매칭:netting and matching) 환위험 자체를 줄이기 위해 수수할 외화를 상계(네팅)하거나, 외화별로 지급 및 수취 시기를 서로 맞춤(매칭)
- (가격 및 결제통화조정) 환율 변동만큼 수출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시장상황에 맞추어 지급과 수취에 사용되는 결제 통화를 조정함
- (내수시장 활용)국내 생산품은 국내 시장 판매에,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외 현지의 내수 시장에 대한 판매에 주력함

▷ **대외적 기법:** 기업의 외부적 여건(시장)에 대처하여 투자 구조를 조정함

- 2) 수출 채산성 유지를 위한 환율 수준을 의미하며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달러당 1,250원 ~ 1,350원 수준임.
- 3) 예를 들어, 선물시장에서 통화선물을 사용하면 현재의 선물환시장에 비해 소액 단위의 거래가 가능하며, 적은 보증금과 낮은 수수료 때문에 기존의 선물환시장에 비하여 유리하나 선물시장이 아직 개설되어 있지 못함

- (선물환 활용)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특정의 외환을 일정한 환율로 인도 또는 인수할 것을 약정하여 환 위험을 관리함
- (통화선물 활용) 통화선물을 매도 또는 매입하여 환 위험에 노출된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를 보전하며 상황에 따라 포지션을 조정함
- (통화옵션 활용) 특정 통화 일정액을 미래의 일정 기간 내 또는 특정일에 특정의 환율로 다른 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통해 관리
- (통화스왑 활용) 두 차입자가 상이한 통화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한 약속함으로써 환 위험을 관리함

▷기타: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자산 구성을 국제화하여 특정 통화에 대한 기업의 환 위험을 관리함

- (개선 과제) 기업은 직면하는 환 위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, 관련 조적을 정비하며, 정책당국도 4월에 개설할 선물거래소를 제대로 정착시켜 선물시장을 통하여 기업들이 환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 - 기업들이 직면하는 환 위험의 실제적인 규모 파악이 미흡한 수준인데, 기업이 실질적인 환 노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나가야 할 것임. 아울러 체계적인 조직 및 운영 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임
 - 또한 환 위험 헤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임. 예를 들어, 헤지 거래에 대하여 그 결과가 헤지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못한 경우, 이를 위험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임
 - 장부상 드러나는 환 손실에 집착하는 경직적인 관리를 지양해야 할 것임
 - 4월에 개설 예정인 한국선물거래소의 상장 상품을 활용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환 위험을 관리하여야 할 것임
 - 정부당국이나 선물관련 업계도 4월 선물거래소 개설이후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

(김 회 성 hiskam@hri.co.kr ☎724-4020)